“차례는 신라 때 충담 스님으로부터 시작된거야”

불자들은 추석 이렇게 보내요

불자들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다른 불자 가족의 명절 모습이 궁금하다. 가상으로 불자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봤다. 9월 12일 한가위를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불자 가족들을 소개한다. 강태욱 김나현 부부는 두 자녀를 모두 출가 시키고 맞는 첫 명절이다.

가상취재=천진영 기자

삽화=오영식

절에서 지내는 합동 차례 어떠세요?

예순이 넘은 나현 씨는 장손이었던 남편을 만나 고된 시집살이를 겪었던 터라 올해 며느리에게만큼은 명절에 대한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한지 오래다. 나현 씨는 올 추석에 아예 차례 상을 차리지 않았다. 절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일찍이 법당에 초공양을 올려 조상님들을 모셨다. 단지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먹을 식사와 과일만 넉넉히 준비했다.

이제, 며느리도 봤는데 기름냄새, 고기냄새 안 나는 명절이 섭섭하지 않느냐는 말에 나현 씨는 손사래를 치면서 “바깥양반은 당뇨병이고 나도 관절염이 있어 음식은 적게 먹을수록 약”이라며 “차례 음식 준비하는 고생도 덜고 과식도 막아줘 절에서 지내는 합동차례가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태욱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고시볼’ 맛에 흠뻑 빠졌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연우와 함께’에서 구입한 제품이다. 고시볼은 전통방식으로 찹쌀을 숙성시켜 만든 발효 과자로 태욱 씨처럼 당 조절에 민감한 분들도 먹을 수 있는 자연 과자이다.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며느리 유진 씨가 골랐다.

운전 중 졸릴 땐 ‘냉 녹차’가 최고

9월 9일 금요일 6시 정각에 퇴근을 하고 부랴부랴 집에 도착한 강철 씨는 서둘러 고향집에 내려갈 채비를 한다.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차안에서 마실 시원한 녹차를 챙긴다. 강철, 김유진 부부는 젊은 부부 답지 않게 차(茶)를 정말 많이 마신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꾸준히 차를 마셔온 습관 때문이다. 강철 씨는 “커피를 마셔야 졸음이 가신다는 친구들이 많지만 나는 녹차를 마시면 졸음도 가시고 입안도 상쾌해 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강철 씨의 어머니 나현 씨와 유진 씨의 어머니 권민경(61) 씨는 중앙신도회 다도회 회원이다. 나현 씨와 민경 씨의 차 사랑은 대단하다. 다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현 씨는 “우리 양반이 당뇨병을 10년이나 앓고 있지만 아무 합병증 없이 지내는 것이 다 차 덕분”이라고 말했다. 민경 씨는 “우리 딸 유진이가 차분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이 차 덕”이라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유명한 학원을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다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 씨는 퇴근하자마자 세탁소에 맡겨 놓았던 한복을 찾아 차에 실었다. 시집와서 보내는 첫 명절인 만큼 긴장도 되고 설레었다.

사회적기업에서 선물 구매는
간접봉사 하는 착한 소비 행동
교양방송 풍성한 불교방송과
소식하는 명절로 상부상조를
교육적인 명절로 기억되려면
아이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문화 교양 프로그램 많은 BBS와 BTN

금요일 밤, 예상보다 고속도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유진 씨는 라디오 주파수를 FM 101.9 에 맞춘다. BBS불교방송에서는 11시에 방송되는 ‘영화음악실’ 애청자이기 때문이다. 유진 씨는 “불교방송이라고 하면 스님 법문만 나오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문화 교양 프로그램도 많다. 연예인들의 사소한 이야기만 다루는 방송이 식상하다면 들어볼만 하다”며 권한다. 오늘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온 ‘All You Need Is Love'가 선곡됐다. 신혼부부인 강철 씨와 유진 씨가 함께 부르며 정체구간의 지루함을 달랜다.

새벽 1시가 돼서야 고향집에 도착했다. 늦은 밤에 귀성하는 아들 며느리 생각에 부모님도 잠 못 이루고 계셨다. 강철과 유진은 부모님께 큰 절부터 올리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어서 씻고 잠부터 자라며 만류했다.

추석을 앞둔 11일. 다른 집 같으면 허리가 아프도록 전을 부치고 있을 시간이지만 강철 씨네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소식(小食)’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부모님 때문이다.

한 상에 네 식구가 마주 앉았다. 찬은 삼색 나물과 동태전, 호박전, 토란국이 전부다. 후식으로는 송편 사과 배 대추차가 준비 됐다. 유진 씨는 점심준비로 동태전과 호박전을 20개 남짓 부치는 일을 도운 것이 전부다. 음식을 남겨 버리는 일도 악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음식 장만을 거창하게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점심(點心)은 마음에 점을 찍듯 소식하는 시간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식사 후에는 대추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꼭 챙겨 보시는 BTN 방송 ‘선우용여의 스님 뵙고싶었어요’를 다 같이 시청했다. 어머니는 관절염이 생긴후 예전만큼 절에 자주 가지 못하시면서 BBS와 BTN을 시청 하시는 시간이 늘었다. 또, 추석 방송들이 어린 가수들이 나오는 쇼 프로그램만하니 볼만한 채널은 EBS와 불교 관련 방송이 전부다.

사찰음식으로 큰아이 아토피 고쳐

오후에는 누나 내외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 누나 내외는 설에는 시댁을 방문하고 추석에는 친정으로 온다. 10살 7살 두 사내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간식부터 찾는다. 먼 길 차속에서 배가 고팠나 보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송편과 약과를 얼른 꺼내 왔다.

아이들의 엄마인 강주현 씨는 동국대에서 사찰음식 수업을 듣고 있다. 큰아이가 어릴 때 아토피를 앓아 사찰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가공 식품을 멀리 하는 것. 과자 대신 찐 감자와 고구마를, 피자대신 해물 파전을 해줬다.

이런 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다행이도 아이들은 깎아둔 생밤, 대추를 맛있다며 열심히 먹었다.

차례의 기원은 다례(茶禮)

아이들의 시장기가 달래졌을 때쯤 할머니는 다구(茶具)를 꺼내 준비하셨다. 손자들에게 다도를 가르칠 셈이셨다. 온 동네방네 뛰어 다니던 10살 7살 손자들도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가 끓여 주시는 차를 마실 채비를 했다.

할머니는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신라시대 충담 스님이 미륵불에 올린 차례에서 시작 된 거야. 낮에 지낸 제사지. 다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라고도 불러 귀한 차를 올리는 특별한 제사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조선시대 영조가 비싼 차 대신 술이나 뜨거운 물을 올리라고 명한 뒤로 ‘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요즘은 차도 구하기 쉽지? 그래서 할머니는 조상님께 차를 올릴 꺼야. 조상님께 차를 올리기 전에 너희들에게 차 끓이는 법을 알려줄께. 잘 보렴”하며 시범을 보였다.

어디선가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 불어오고 물소리도 크게 들렸다. 막내는 시골집의 고요함이 어색해 자꾸 헛기침을 해댔다. 민우는 “뜨겁고 쓸 것만 같던 차는 생각보다 더 향긋해서 좋다”고 했다. 차를 마신 아이들은 한결 차분해 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던 시골집에 여섯 사람이 놀러오자 시끌시끌 복닥복닥 사람 냄새가 물신 났다.

남은 연휴는 템플스테이

추석 당일에는 절에 가서 마을 주민들과 합동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마쳤다. 누나 내외는 서둘러 출발할 채비를 한다. 해남 미황사에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하러 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명절이 그저 많이 먹고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닌 쉬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날로 남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은 늦더위에 바닷가 근처에 절에 간다니 마냥 좋아했다.

강철은 유진이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온양 온천에 들려 피로를 풀고 다음날에는 충남 예산 수덕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10월 개천절 연휴 2박 3일을 수덕사에 템플스테이를 해볼까 생각중이기 때문이다. 천년을 훌쩍 넘는 고찰 수덕사의 가을 정취를 느낄 생각에 먼 귀경길도 즐겁기만 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